

중단횡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주 전에 본교생의 탈정치화 정도를 도한 적이 있다. 현직 국무총리의 이름을 쓴 학생이 절반에 못 미쳤다.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18대 국회의 여당 이름과 제1야당의 이름을 쓴 학생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이름들을 모른다는 것은 뉴스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 이쯤 되니 양당의 대표 이름을 아는 학생이 네댓명 중 한 명 꼴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특히 이공계의 성적이 저조해 모든 질문에서 정답률이 인문계의 절반 정도를 보였다. 여당의 이름을 몰랐던 본교생 중 60% 이상이 이공계였다.

학과 공부 어렵고 시험이 잦은 이공계생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공계의 성적이 저조한 원인은 다른 데 있어 보였다.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돌리면서 “이런 건 인문계 학생이 아니냐”는 반문을 자주 들었다. 마치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인문계 학생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처럼 들렸다.

시민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올버튼 시민의식 함양은 전인교육의 핵심 중 핵심이다.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심어주지 못한 채 학교의 울타리를 떠나보내선 안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민 지식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정치적 이해와 관심은 어느 정도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경제적 급부를 쥐가며 투표를 호소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참여 유도의 방안이라라.

입헌민주주의가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패러다임은 대의제에서 참여 분위의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이제 제도정치 뿐 아니라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더 절실해질 것이다. 젊은 주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제도 인프라의 성장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윤준보 기자 bb@kukey.com

高대新聞 1947년 11월 3일 창간
The Korea University Weekly

주간 | 매주 월요일 발행
발행인 이기수
편집인 겸 주간 심재철
인쇄인 고광현
편집국장 윤지현
취재부장 강승리
사서부장 김이슬 / 문화부장 김이연 /
특집부장 주정윤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편집국 02-3290-1683, 02-923-4408
FAX 02-928-0879
총무국 02-3290-1682
세종캠퍼스 편집국 041-860-1848
대표메일 news@kukey.com

시론 | 이기식 문과대 교수 · 독어독문학과

이번에 세종시면 다음은 평양시다

세종시는 7년 전故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생겨났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그 본인도 ‘재미를 좀 봤다’고 나중에 고백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수도 이전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세종시는 충청민의 자존심’이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치가의 정치늬움에 요즘 온 국민은 세종시를 생각한다.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는 측 논리는 ‘지역균형발전’이고, 반대 측 논리는 ‘효율성’이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일을 예로 살펴보자. 통일 이후 독일의 공식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행정·입법적으론 수도의 역할이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에 있던 수도 기능을 절반 가량만 베를린으로 옮긴 것이다. 행정부의 8개 부처는 베를린에, 6개 부처는 본에 있다. 본부가 베를린에 있는 부처는 본에 제2청사를 두고, 그 반대로 본부가 본에 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제2청사를 두고 있다. 본부가 있는 곳에는 약

80%, 제2청사가 있는 곳에는 약 20%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베를린과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재 각 9000명 정도다.

독일은 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공무원의 출장횟수는 연간 13만 회고, 서울 비행기는 매일 20회 정도 다닌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연간 2300만 유로(약 400억 원)이다. 각 부처가 2개의 청사를 가지고 있어 드는 비용과 공무원의 출장비용, 노동시간 손실에 따른 비용이다. 본과 베를린 부처 사이에 오가는 우편물은 연 750톤에 이른다. 화상회의를 통해 그 비용을 줄이려 해도 업무효율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수도가 둘로 나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공무원의 출장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 상 장관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에 상주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 세금부담은 자연스럽게 수배에 없다.

독일 수도가 2개로 나뉘어 있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각 부처 간 소통문제다. 또 업무 협조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관이 베를린

의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에 있는 부처 본부에 대한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독일의 학계와 정치계에서는 본의 부서를 모두 베를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면 본이 과거처럼 작은 마을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렇지만 베를린으로 수도 기능 일부분을 옮기기 시작한 후 연방 우체국과 텔레콤 등 대기업이 3개나 본으로 들어왔다. 13개의 유엔 기구, 170개의 국제기구 및 NGO도 이전에 왔다. 거기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도 새로 건립됐다. 본은 오히려 수도일 때보다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지 꼭 10년이 됐다. 독일도 이를 계기로 수도 이전을 두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모든 국민이 논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각자 생존에 종사하고, 전문가와 해당 정치가들이 조율해 장단점을 두고 따진다. 현재 중론은 2개의 행정·입법적 수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본의 모든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할 것이다.

세종시는 정략의 산물로 생겨나 여전히 정략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수도 이전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한 결과, 지금도 전문가 간에 구체적인 테이터를 가지고 토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세종시를 정략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세종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남북통일이 됐을 때 세종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어떤 정당이 선거 전략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고 가정해보자. 그 폭발력은 세종시를 훨씬 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 수가 남한의 절반이니 북한 사람이 남한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기다 한반도의 균형발전, 고구려 기상 재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 우리는 다시 평양으로 천도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고대신문을 읽으

스스로를 승리자로 여기는 사회

1628호 고대신문 여론면에서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군 ‘루저 사태’가 다뤄졌다. 발언의 문제 정도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이미 일정 수위를 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사과성 멘트로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루저사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은 지금같이 격렬한 분노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게 2가지 요소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논란 발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소수가 아닌 대다수라는 것, 두 번째는 패배자라는 말에 상처받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요인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루저’라는 발언은 왜 그토록 많은 이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일까?

예를 들어 똑똑한 사람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애정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 당사자에게 아무런 분노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바보’라는 자각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그 말은 옥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그 발언에 대한 자각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저’라는 발언이 그토록 많은 이의 분노를 사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가 패배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수많은 ‘패’함에 지쳐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고 있는 좋지 않은 시점이기 ‘루저’ 발언이 비수처럼 다가온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여대생의 망언 차원을 넘어 현재 젊은이들의 자기에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 지표로 자리 잡게 될 듯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사회의 패배의식이 그만큼 짙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일의 향후 논의 방향은 젊은이가 스스로를 승리자로 여길 수 있는 ‘승리의 장’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승리자

와 패배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전쟁 같은 사회가 아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루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 이동빈 공과대 전기전자전파04

카메라 사극



비행
나이, 성별, 돈, 말...
우리는 현실에 매여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꿈을 품다.
틀을 깨고 자유를 찾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몫이다.

한상우 기자 wss@kukey.com

수리대박

정치인에게 궁금한 것들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청문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선 ‘우리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에 치중했지만 미국 상원위의 인준청문회는 전망적(prospect) 측면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이 정운찬 총리에게 한 질문의 주를 이뤘다면 이라크 정책, 북핵 6자회담 등이 힐러리에게 한 질문이었다.

국정수행의 적임자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행적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현 환경부장관의 친자 확인 소송 사건도 이런 면에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정치인 ‘사용’ 목적을 잊어서 안 된다. 국민에게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필요한 존재이지 가십거리의 대상은 아니다. 정책수행능력과 비전 제시능력이 도덕성보단 먼저 놓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정치인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단편적인 것

대로 비판할 수만은 없다. 과거행적과 사생활에 집중하는 행태를 회고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의 미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점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악순환이다. 한 번 찍힌 정치인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다보니 정치인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계속 실망을 안겨주니 국민은 과거 행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을 벗어날려면 정치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정치인들도 인권이 있으니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말라’고 외치기 전에 ‘회고적이다, 전망적이다’라는 논의할 필요없는,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의 경중을 따져야 할 필요도 없는 모두를 견비한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김이연 문화부장

>>> 특별기고

인촌 선생의 비디오카메라와 고대 석탑의 연원

건축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고려대에 근무하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고려대 100년 역사를 추적하면 한국 근현대건축사의 단면을 여실히 바라볼 수 있다. 비록 셋방살이로 시작했으나, 보성전문은 1905년 개교 이래 수송동의 한옥건물과 낙원동, 송현동 세 곳의 이양풍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했다. 1934년 본관 완공과 더불어 개막한 안암동 시대는 이후 가세한 도서관(1937년), 서관(1955년)과 함께 석탑 캠퍼스 스케이프를 연출하며 고려대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뒤이은 교양관(1960년), 학생회관(1971년) 등 근대주의 건축물과 최근 건설된 타이거플라자(2004년), 법학도서관(2007년)과 같이 미끈한 현대건축물은 캠퍼스에 새로운 시간의 컷을 더해준다. 비록 ‘급진적’ 디자인의 건물이 부재하나 본교 교정은 그 찬찬한 면모로 지난 한 세기 대한민국 건축의 변천을 대변한다.

고려대의 인상은 본관을 위시해 동·서관이 이뤄내는 고딕 석탑의 실루엣이다. 본교 건축사에서 ‘석조고딕’이란 양

식적 문제는 단지 몇몇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려대의 상징이자 일제치하에도 살아 숨 쉬었던 민족정신의 구현은 관은 그 현대적 외관을 통해서도 석조고딕 건축과의 어울림을 입증해야만 했다. 가히 ‘석풍(石風)의 위력’이라 칭할 만하다. 그렇다면 본교 안암캠퍼스 초기 건축물은 어떤 경위로 석조고딕 양식을 취하게 됐을까? 그 기원을 살피는 일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능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다.

질문의 답은 크게 둘로 볼 수 있다. 첫째 의견은 보성전문을 인수해 고려대의 기틀을 다졌던 인촌 김성수 선생의 의지였다. 것으로 지금까지 본교 관계자들 통설이다. 그러나 건축학계에선 10여년 전 이와 다른 의견이 한 유력한 연구자의 논문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는 고대 석조건축이 인촌 선생의 의지 보단 그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 박동진 선생의 견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데에는 박동진이 고대신문에 발표한 ‘GRANITE의 辯’(1955.5.16)에서 보인 애매한 언설에

기인한 듯하다. 박동진은 이 글에서 일본의 유약한 목조건축을 배격하고 우리 땅의 견실한 화강석을 사용하자고 인촌 선생에게 건의했다고 적는 한편, 다른 문단에선 석조건물이 선생의 지론이었다 말하기도 하며 비일관적 태도를 보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주체성 부재를 해결하려 했던 상기 연구자가 너무 쉽게 건축가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나 싶다. 정식으로 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의 1세대 건축가 박동진에게서 건축가의 주체성을 찾고자 했던 것



1 안암캠퍼스 본관 (좌: 1934년), 도서관 (우: 1937년) 및 인촌기념관 (후: 1991년). 2 인촌 김성수 선생 내외와 건축가 박동진 3 미국 듀크대 퍼킨스 도서관 (1930년)



타로 시키프링 | 김정숙 문과대 교수 · 국어국문학과

기록하는 삶

내 은사이신 국어학자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을 나는 순전히 기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것을 뭐 하러 적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께서는 어린 제자가 사 드린 투박한 플라스틱 쟁반 하나에조차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을 남기신다. 이러한 선생님의 습관 덕에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는 선생님께도 우리에게도 역사가 되었다.

나도 이것저것을 기록하고 있다. 내 수첩에도 수많은 만남과 생각의 조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기록은 선생님의 기록과 같이 생생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한다. 선생님의 기록이 선생님만의 특별한 인상과 의미 부여에 기초한 것이라면 나의 기록은 피상적·기계적이고, 선

생님의 기록 과정에 활발한 정서적·인지적 활동이 전제된다면 내 기록 과정에는 언제든지 수정이나 변경, 조합이 가능하다는 알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민수 선생님과 같이 기록하며 살지 못한다. 새로운 감각을 느끼거나 정보를 인지할 때 혹은 언뜻 참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부지런히 기록할 뿐이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의미 있고 절실했을 때 사용하게 되어서다. 이런 목적과 방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순간의 감각이나 판단에 의해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 속에서 성숙한 감성이나 사고의 깊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 느끼기도 전에 기록 그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다.

흔히 배회하는 여행을 즐기는 나는 한동안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 덕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은 남기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선명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인 제주를 나에게 ‘허물어진 돌담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이 보이는 안덕의 어느 고갈’이며 ‘화창한 시월의 오후, 보랏빛으로 반짝이던 신앙 바다의 물빛’ 이고 ‘문섬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내 뺨을 간질이던 바람결’이다. 기록된 사진을 볼 때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제주를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주의 풍경 사진을 얻고자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을 느끼기가 어려워졌다. 자연히 새로운 기억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행의 감동도 즐거움도 크게 줄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풍부한 감성 활동과 인지 활동을 하려 살라는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닥친 공부나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 보면 대상을 겨

우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슴으로 느낄 여유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더 오래 더 생생히 기억하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기록을 한다. 그러나 대상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기록은 가치 있는 기록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의 삶의 조각을 기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고 이왕 하는 바엔 간편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감성과 정신의 움직임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 기록 행위는 오히려 우리의 감성을 매마르게 하고 인지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 하여 나는 어설피 기록하는 삶이 아닌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또 그리 살기를 권한다. 그리고 기억한다면, 애써 기록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에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대인 상

입시 아르바이트 소동

지난 21일(토) 2010학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진행됐다. 수험생 6만여 명이 응시했고 본교생 450여 명이 △고사장 관리 △길안내 △답안지 분별 △채점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본교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입학처가 아르바이트생을 선발·배치하는 과정이 미숙했음을 지적하는 글이 많았다.

먼저 전일제 근무가 아니라 반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본 학생이 많았다. ‘멘큐의경제학’은 “반일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12시간근무로 모집했다가 나중에 일반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지어 20일(금) 오후에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페라하우스’는 “일반적인 통보에 황당했다”며 “처음부터 오전·오후로 나눠 뽑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니네이발관’은 “용돈이 필요해 전일제 고사장 관리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반일제 오전으로 바뀌었다”며 “뒤늦게 입학처로부터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요시키’는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 사전교육까지 받았지만 최종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며 “아르바이트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비워놨는데 시간 낭비했다”고 말했다. ‘뽀야’는 “오전조가 아닌데 오전조로 배치됐다는 연락을 받아 문의했더니 오류였다”고 말했다.

몇몇 학생은 학생처의 아르바이트 신청 시스템을 지적했다. ‘H-master’는 “수십 번 전화해도 연결이 안 돼 직접 찾아가니 신청 마감이라고 하고 저녁엔 홈페이지에 다시 모집 공고를 띄워 마감과 모집을 반복했다”며 “교내 아르바이트는 인기가 있어 많은 학생이 신청하는데 전화로 신청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정민 기자 mini@

* 1628호 우리말 정경대리 정답

- 1 지식의 통섭
- 2 기다라다 지친다
- 3 시간 여행자의 아내
- 4 로베르트 연케
- 5 차 과학과 문화
- 6 해파리오색냉채
- 7 의료채관법안
- 8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9 프란시스 드발
- 10 젊은 고대, 깨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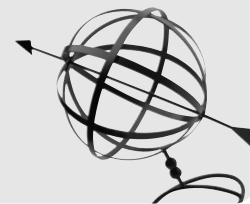
- 한동열(사범대 국교08)
- 홍해민(정경대 정경학부09)

퍼즐 정답을 적어 오는 27일(금)까지 홍보관 2층 <고대신문> 편집실로 가져오거나, 인터넷 고대신문(www.kukey.com)메인 페이지의 ‘응모합니다’ 코너에 올려주시시오. 보내주시 분 중 정답자 2분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시에는 본인의 학과, 학번,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스도쿠

3	7			8	2
	2	6	1		9
		4	5	3	2
			4		9
		2	7	8	1
	4	3	6		5
9	6			7	3

푸는 방법 | 이 게임은 가로, 세로 9칸씩 모두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각각 1부터 9까지 숫자를 한 번씩만 써서 채우는 원리입니다. 또 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각 3칸으로 모두 9칸 인 사각형 9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9칸짜리 사각형 안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냉전’은 차가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冷箭

기원 전 6세기에서 기원 후 13세기까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를 지나, 중앙아시아의 상징적인 종교도시 부하라(Bukhara)로 향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수도원’이라는 고도(古都) 부하라는 고대 불교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거쳐 8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문명이 번창한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다.

아랍계 무슬림 침략자들이 구도시를 매립한 후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며 수도원을 지은 덕에 지금도 20만 땅을 파도 고대 불교사원과 마을 터, 동서양의 도자기와 보화를 헐사리 발견할 수 있다. 도시 전역에 어렴풋이 흔적만 남아 있는 100여 개의 언덕과 그 주위를 운치 있게 둘러싼 차이 하나(실크로드 특유의 야외 오아시스 카페)에는 성스럽고 세련된 향이 그윽하다. 젊은 여학생들은 우리보다 한국 드라마 대서며 연예인 계보를 눈감고도 외을 정도라 어지간한 상식으로는 한탄 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여행의 달콤함은 잠시일 뿐, 맨 얼굴의 도시와 조우하는 순간 나는 이내 주민들을 수십 년간 길들여온 만성적인 가난과 딱이시울, 급격한 사막화와 인구감소, 서구의 계획적인 문화적 약탈, 그리고,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큰 딸이 주도하는 권력형 비리 같은 실패의 스토리 앞에서 한없이 왜소한 자신에게 또 한번 실망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4년 전 실크로드 배낭여행 길에 군경들이 반정부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난사한 ‘안디잔 대학살’을 우연히 목격한 나로서는 우즈베크 우자동차(Uz-Daewoo Avto, 1991년 대우자동차와 우즈베크 정부의 합작회사)가 현지생산을 기반으로 로컬전략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나, 대우인터내셔널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대우텍스타일(Daewoo Textile)이 이미 국민기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한 것이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다.

사실상 2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기괴한 노동시장, 어린 시절부터 학생부터 국립대 석·박사까지 잠재적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정부, 상당 수의 젊은 여성들이 외국인 대상 매춘부로 연방(현지 사람들 말로는 20대 여성 5명에 1명 꼴이라고)하는 극단적인 세태, 그리고 러시아의 초강력 에너지 그룹 가스프롬(Gazprom)과 다국적기업 셸(Royal Dutch Shell)이 협잡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탈취해갈 수 있는 “만만한 나라, 우즈베크스탄...”

그대, 세계지도상에 220여 개국이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시험점수나 학점을 뚝 매달아야 할 만큼 시간이 남아도는가? 복잡미묘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배짱도 없을 만큼 생활이 각박한가? 이 좁은 한국에서, 고대라는 울타리에서 우스꽝스러운 엘리트 대접이나 기대하다 생각지도 못한 열등감에 휩쓸려 살다 죽을 건가? 당당하고 싶은가? 탄탄한 실력과 정확한 판단력, 탁월한 미래감각을 갖추고 싶은가? 나가라! 실세 없이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해가며 안팎으로 써어있는 세상을 직접 바꾸라! 그대가 바로 수십 만 명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고, 수백 명의 민주적 권리를 되찾아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잠재적 시장을 후대에게 선물해줄 진짜 글로벌 고대생이다.

(國際迷兒)

독자투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재되며, e-메일 news@kukey.com
재필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안함 02-3290-1683, 923-4408
드립니다. 세종 041-860-1848



4 미국 코넬대 리슬리 홀 (1913년) 5 글로벌리더십홀 (좌: 2007년) 및 법학도서관 (우: 2007년): 이들은 사적(史蹟)인 도서관 뒤에 세워져 그 석조고딕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나마 적용해야 했다.



이 건축사 연구자에게 당연한 시도라 한데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촌 선생이 1929년 말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의 구미 여행 중 영국의 옥스퍼드대, 캠브리지대, 독일의 베를린대, 하이델베르크대, 미국의 콜롬비아대, 하버드대 등 우수한 대학을 시찰하고 귀국 후 그에 못지않은 대학을 세우려는 의지를 보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몇몇 문헌은 인촌 선생이 유럽과 미국에서 방문했던 대학 시설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아왔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는데,

데, 그 중 듀크대 도서관 건물의 모델이 됐다고 적는다. 또 다른 문헌은 당시 본교에 근무하던 오천석 교수의 듀크대 졸업앨범이 영감의 원천이란 증언을 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학술원 자료에 의하면 오 교수는 코넬대, 노스웨스턴대, 콜롬비아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분분한 의견이 반드시 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촌 선생이 보성전문을 인수한 후 세계 우수 대학처럼 석조건물을 짓고자 했을 것이고, 이

에 건축가 박동진이 화답해 인촌의 비디오판 사진첩, 혹은 어느 학교 것인지 불확실하나 오 교수의 졸업앨범을 참고하며 고딕양식의 건물을 설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어렵פות한 일개일 뿐, 정확한 내러티브의 이음새와 매듭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건축사 연구자인 필자의 궁극적은 증폭된다. 인촌 선생은 위 대학의 어느 건물을 카메라에 담아 왔을까? 그 촬영을 인촌과 박동진이 함께 보며 토론했다는데, 건축가는 얼마만큼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고 얼마만큼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했을까? 이들을 정말 고려대 건축물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유물이 존재한다면 고대석탑의 연원과 앞으로의 건축 방향성에 중대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필자가 지금 인촌 선생의 비디오판과 사진첩, 그리고 오천석 선생의 졸업앨범을 수소문하고 있는 이유다.

| 김현섭 공과대 교수 · 건축학과

안암골 소식

‘안암골&도화(桃花) 개시판’에는 무료로 홍보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 모집, 동문회 모인, 축하·감사 메시지 등 전체 고대생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신청하는 개인/단체명 △신고자 하는 내용(원고지 200자 내)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학번, 연락처를 적어서 쿠키(kukey.com) 커뮤니티의 ‘안암골&도화’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내용을 검토한 뒤,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받지 않으며, 한 광고당 내용은 최대 200자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실릴 홍보글 신청은 그 전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기에 일찍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암골, 도화골 개시판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값에 뮤지컬 관람하세요

학생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금)부터 뮤지컬 <웨딩싱어>의 S석과 A석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인 15000원, 10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웨딩싱어>는 황정민, 박건형 씨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로, 충무아트홀에서 1월 말까지 공연한다. 예매 및 문의는 02-501-7888로 하면 된다.

*독두울림 03학년 졸업공연

오는 28일(토) 오후 7시 참살이길 ‘Abbey Road’에서 문과대 노래 동아리 독두울림의 03학년 졸업공연 ‘Never Ending Story’가 열린다. 공연에선 락,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펼쳐지며, 독두울림 03학번만의 특별한 화음을 만날 수 있다.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있다.

*재즈동아리 음악감상회 열려

본교 중앙 재즈동아리 JASS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과학도서관 5층 대강당에서 ‘스무 번째 보낸 유리병 속의 편지’를 주제로 음악감상회를 연다. 공연한 점은 011-9013-0315(회장 황정택)에 문의하면 된다.

*제2회 영문인의 밤

본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가 오는 27일(금) 오후 6시 교우회관 연회장에서 ‘제2회 영문인의 밤’을 개최한다. 티켓은 서관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15000원이다. 이번 행사는 영어영문학과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됐다.